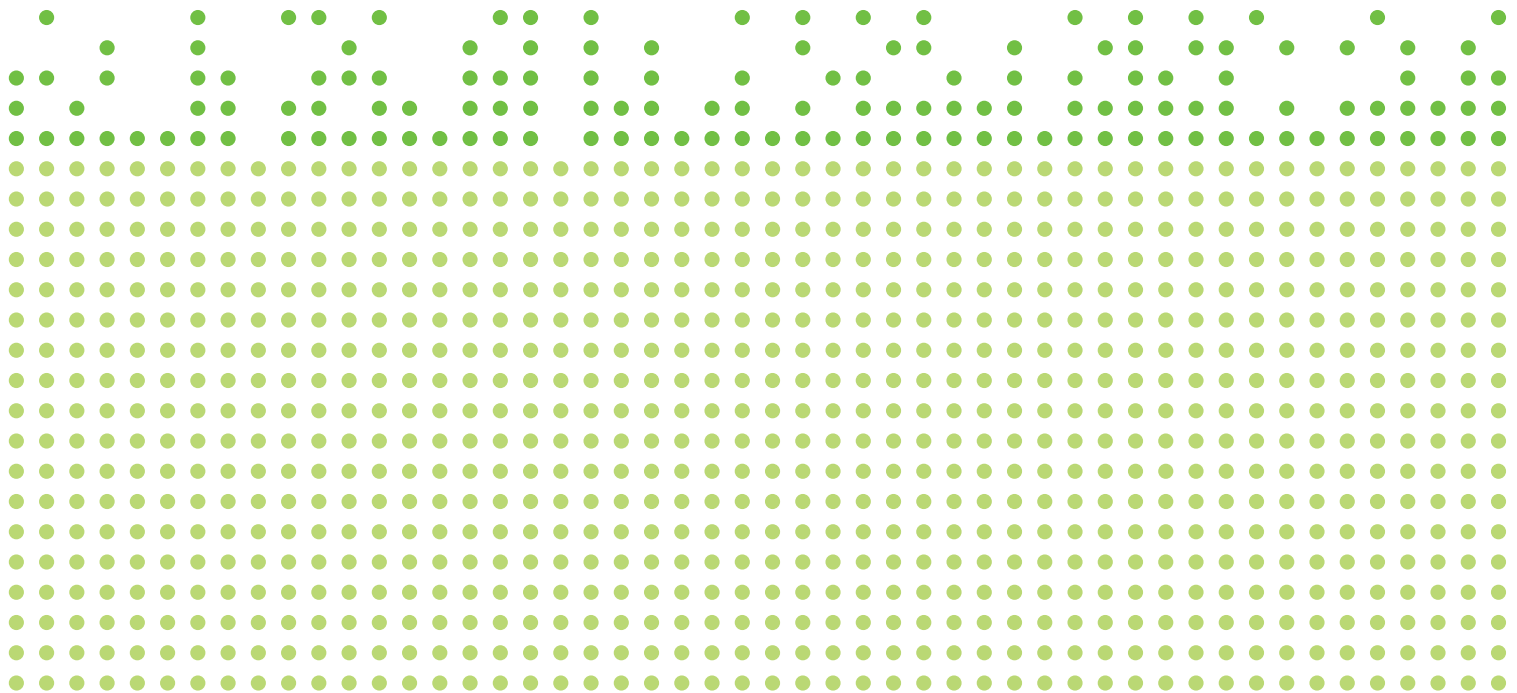




KOCHI자료 13-002
2013.02

[중국 석학에게 듣는다] 2013 중국 경제 전망



[중국 석학에게 듣는다] 2013 중국 경제 전망

작성

베이징무역관 문은혜 과장

자료정리

중국사업단 배서은

[중국 석학에게 듣는다] 2013 중국 경제 전망

2013. 2. 8.

좌담회 개요	3
좌담회 참가 중국 경제학자 프로필	4
중국 경제학자 좌담회 회의록	5

kotra
중국사업단

□ 추진배경

- 시진핑 시대를 맞아 전환기를 맞이한 2013년 중국의 경제전망 및 新정부의 경제정책향방 모색

□ 좌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013.1.17.(목) / 베이징무역관 대회의실
- 참가자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왕이밍(王一鳴)부원장
국무원발전연구중심 펑페이(馮飛)부장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쉬창원(徐長文)주임
- 주요 논의 내용
 - 2012년 중국 경제 평가
 - 2013년 중국 경제 전망
 - 2013년 중국 경제정책 방향
 - 2013년 중국 경제 위험요인 및 해결방안

좌담회 참가 중국 경제학자 프로필

□ 왕이밍(王一鳴)



- 직책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상무부원장
- 약력 : EU 중-유럽연구센터 연구원('93~'94)
벨기에 명문 Leuven대학 방문학자('93~'94)
중국사회과학원/인민대학 등 겸임교수
중국거시경제학회 이사
- 연구: '10.5'시기 중국경제와 사회발전의
주요 문제연구
지식경제와 사회경제발전
중국구역경제정책연구

□ 펑페이(馮飛)



- 직책 :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산업경제연구부 부장
- 약력 : 국무원발전연구중심 근무시작('93)
캐나다 토론토대학 방문학자('94)
- 연구: 2030년 중국국가에너지전략
WTO체제하 중국자동차산업발전전략 및 정책
'11.5'시기 및 2020년 산업구조변화추세

□ 쉬창원(徐長文)



- 직책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아시아아프리카 연구부 주임
- 겸임 : 전국일본경제학회 상무이사
일본학회 이사
아시아아프리카연구학회 이사
- 연구: 아세안+한중일 경제협력연구
한중일 경제협력 강화 문제
중국-아프리카 무역관계 회고 및 전망 등

중국 경제학자 좌담회 회의록

Q 2012년 중국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 하반기 소비 수요 회복, 타국가 대비 양호한 성적이나 수출은 부진
- ▶ 왕이밍: 2012년 성장률은 7.8%로 2011년보다 하락폭이 크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신흥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 ▶ 펑페이: 3분기까지 하락세였으나 9월부터 인프라 투자 활성화, 온라인 시장 확대 등 소비 수요 회복에 힘입어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다. 그러나 수출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연초 정부가 제시한 수출 10% 증가 목표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감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달성하지 못했다. 중국 경제가 바닥에서 기초를 다지고 회복하고 있지만 아직 기본기가 단단히 다져지지 않는다고 본다.

Q 2013년 중국 경제를 전망한다면?

- 신지도부 경제부양정책으로 올해 성장률 8.0% 예상
- ▶ 펑페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성장률은 2012년보다 소폭 회복해 8.0%로 예상한다. 전반적인 여건도 나아지겠지만 중앙 및 지방정부에 신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경제부양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호재요인 중 하나다.
-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이 중국에 '수입성 팽창요인'으로 작용, 물가 상승 우려됨
- 그러나 물가가 다시 상승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려 요인이다. 2012년 12월 CPI는 2.5%로 10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했다. 4분기 CPI 상승은 추운 계절로 인한 야채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성 요인'도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이

경제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양적완화 정책이 중국에 ‘수입성 팽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입성 팽창은 두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자원가격 상승으로 철광석 가격이 최근 크게 올랐다. 둘째는 유동성 확대 이후 남아도는 투자자금이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등 구조조정단계에 있는 산업이 핫머니 유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직은 2013년 경제가 전고후저(前高後底)일지, 전저후고(前底後高)일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하반기 경기가 갑자기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

□ 중국정부, 올해 성장률 목표 약 7.5%로 설정할 것으로 예상됨

중앙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7.5% 정도로 설정할 전망이다.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8%를 상회할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의견이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해와 동일한 목표를 유지함으로써 성장의 속도보다는 질을 중시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것이다. 올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도층이 교체되면서 지방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과잉 투자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 중앙정부, 성장률보다는 경제구조조정 문제 해결에 중점 둘 것

중국은 중장기적인 문제가 눈앞의 문제보다 큰 걱정거리이므로 성장률이 7.5%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사실 중국에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쉽다. 부동산 제한과 자동차 구매제한을 취소하면 바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사실 중국에서 2002~2008년까지는 자동차, 부동산에 의해 경제가 성장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로 인한 부작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는 성장률 보다는 경제구조조정이라는 장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 투자·소비 회복이 주요 성장 원동력이 될 것, 수출도 작년대비 호조 예상

- ▶ **왕이밍:** 2013년 중국 경제는 작년대보다는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큰 폭의 회복은 어렵다. 성장률은 8.1~8.2%를 기록할 것으로 본다. 투자와 소비 회복이 주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수출도 작년대보다 호조를 띠 것이다.

투자의 경우 2012년 1분기부터 급증한 인프라 투자가 올해에도 계속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올해는 12.5규획(2011~2015년) 3년차로 투자규모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소비는 작년부터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회복세로 주택 시장이 살아나 가전시장 및 건축재료 시장 회복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수출은 유럽과 미국이 경제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면서 다소 나아질 수 있다. 다만 중일무역이 줄어 이 회복세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는 아마 수출증가율 10%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Q 중국에서 두 자리 수 고성장 시기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의 성장동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새로운 대체동력으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 **왕이밍:** 중국은 개혁개방 후 34년 동안 고성장을 유지해 왔고 2012년 경제규모가 50조 위안을 돌파했다. 향후 두 자리 수 성장은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자리수 성장을 하더라도 과거 두 자리 수 성장을 하던 때보다 절대적인 증가폭은 크다.

□ 자본 및 노동 투입 감소 – 과거 성장동력 한계 봉착

과거 성장동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은 정확하다. 과거에는 높은 투자율, 높은 저축률, 인구보너스 효과(노동가능인구 비중 증가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 때문에 고속성장을 했지만, 이러한 성장 동력이 감소하고 있다. 노동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동원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노동력 공급이 수요를 넘어섰지만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기업이 임금을 올려야만 고용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즉 노동원가가 올라가야 한다는 얘기다.

중국 내 자본과 노동 투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을 지속하려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과거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생산요소의 전이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농업인구가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이전하면서 5~7배 정도 생산성이 올라갔다. 그러나 생산요소 전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은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

□ 신성장동력 필요 – 기술혁신, 인력투자, 내수시장 확대, 도시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 R&D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기술을 일본, 한국, 독일 등 해외에서 도입하는 방법을 활용했으나 이제는 중국 자체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뤄야 한다.

또한 노동력의 ‘양’보다는 노동력의 ‘품질’ 우위를 도모해야 한다. 이 부분은 현재 인력에 대한 투자가 많기 때문에 전망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본다. 매년 해외로 떠나는 유학생 수가 30만명, 국내 대학교 모집인원이 600만명에 달하며 중국 내 현재 대학교 재학생은 2,600만명이다.

아울러 내수성장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중국 내 중산층이 급증하고 있는데, 외부기관의 데이터에 의하면 3억명이라고 한다. 이 규모는 향후 4~5억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투자를 대신해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도시화의 확대도 중요한 성장 동력이다. 2011년 기준 중국의 도시화율은 51.3%이며 향후 7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매년 도시화율이 0.8~1% 증가한다고 볼 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2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도시화로 인해 인구 300~400만명 도시가 다수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며 도시 개발에 따라 지하철, 공항 등 인프라 건설이 활발해 질 것이다. 새로운 도시가 등장하면서 투자가 늘어나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 **평페이:** 이 시점에서 중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혁신이다. 중국의 저가 노동력 등 기존의 비교우위가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교우위가 아직 없는 것이 문제다. 새로운 비교우위와 성장동력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새로운 성장 동력은 크게 두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새로운 국내 소비수요를 확대하는 것이다. 중국은 큰 국가이기 때문에 내수 위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 소비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는 도시화이다. 중국의 도시화율이 현재 51% 내외라고 하지만 호적인구로 재통계하면 3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에서도 도시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진한 사례가 있는데, 도시화율을 30%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단계에서 가장 큰 폭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으로 중국의 도시화율을 최대 75%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의 투자 및 소비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

Q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취임직후 ‘중화부흥’을 강조하고 있다.
중화경제권 부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 2025년, 중국 GDP 규모 미국 초과할 것

▶ **왕이밍:** 중국경제는 과거 가장 발전했을 때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한 적이 있다. 아편 전쟁 후 상당히 쇠락해 현재는 세계 경제 규모의 약 11%를 차지한다. 향후 발전을 통해 예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매년 7~8% 성장을 유지하고 위안화가 매년 3~5% 절상된다고 가정할 때 이는 실질적으로 중국이 상당기간 동안 매년 10%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 2020년은 어렵지만 2025년에는 GDP 규모가 미국을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Q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거시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고 강조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 중국정부, 효율 및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 **왕이밍:** 과거 중국 경제는 생산규모 확대를 통한 빠른 성장을 추구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생산과잉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앞으로는 효율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하겠다는 방침이다.

- ▶ **쉬창원:**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은 환경 오염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의미다.

Q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또한 올해 정책방향으로 내수 확대를 강조했다. 향후 중국의 소비가 수출과 투자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 소득구조조정을 통한 내수소비 진작 필요하나, 임금상승과 소비재가격 상승 사이의 적절한 균형 필요

- ▶ **왕이밍:** 내수는 소비와 투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중국은 원래 내수에 기반해 성장해왔다. 수출이 중요한 작용을 하기는 했지만 내수의 성장 기여율이 원래 90% 이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내수를 육성하겠다고 하는 의미는 투자보다 소비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이다. 과거에는 제품을 생산해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내 소비가 많지 않았다.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력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향후 소득구조조정을 통해 소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소득이 높아지면 생산가격이 상승해 소비재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소득 상승과 소비재의 가격 상승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잘 찾아야 한다.

- 투자성장기여율을 낮추며 소비성장기여율 제고 방안 추구 필요

- ▶ **펑페이:** 현재 투자율이 너무 높고 성장이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당장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소비수요 진작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바로 실현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소비가 진작되려면 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돈을 쓸 수 있는 소비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회보장체제가 완비되어 마음 놓고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정부의 목표는 소비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지만 당장은 어려울 것이고 점차 투자의 성장 기여율을 낮추면서 소비의 성장 기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

Q 리커창 부총리가 3월에 총리가 되면 경제 사령탑이 되는데 어떤 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 리커창 총리, 개혁보너스 및 도시화 정책에 집중할 예정

▶ **펑페이:** 최근 연설들로 미루어보면, 가장 인상적인 것은 ‘개혁보너스’이다. 개혁보너스란 정부개혁을 포함해 개혁정책 추진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경제 성장이 촉진되는 보너스 효과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인구 보너스에 성장을 의존했는데 인구 보너스 효과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하는 것이 개혁보너스라는 개념이다. 두번째는 도시화다. 도시화는 내수 촉진에서 매우 중요하다.

Q 최근 중국의 ‘신형도시화’ 정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가? 기업들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 “사람의 도시화”를 통해 대중교통, 가스, 병원, 공공시설 분야 투자 증가 예상됨

▶ **왕이밍:** 과거 중국의 도시화의 개념은 ‘토지의 도시화’를 의미했다. 대규모 건축을 통해 농토에 도시를 만드는 개념이다. 신형 도시화의 개념은 ‘사람의 도시화’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지만 도시민으로서 그에 적합한 공공서비스나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도시화를 통해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중교통, 가스, 병원, 공공시설 분야에 투자가 몰릴 전망이다.

▶ **쉬창원:**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화란 ‘청췌화(城鎮化)’를 말한다. ‘췌(鎮)’은 규모가 작은 소도시를 의미한다. 베이징, 상하이 같이 규모가 큰 대도시에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청췌화’이다.

- ▶ **왕이밍:** 중국 도시화 정책이 향후 순조롭게 추진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한국의 경우 서울인구가 전체 한국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도 지역별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지만 대도시로 몰리는 수요가 높아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중국도 대도시로 몰리는 수요가 매우 높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화 정책이 계획대로 실현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 ▶ **쉬창원:**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리는 이유는 중소도시에 인프라가 부족하고 취업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점차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중소 도시에 정착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본다.

Q 소득분배 개혁은 예전부터 추진했는데 진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현재 논의 중인 소득분배 개혁안의 핵심은 무엇인가?

□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통한 소득분배 개혁 추진 필요**

- ▶ **왕이밍:** 소득분배 개혁을 하게 되면 기득권층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부유층의 재산을 빈곤층에게 나눠주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그런 방식을 고수한다면 부유층이 모두 이민을 선택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부유층 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은 불공정 경쟁을 통해서 취한 이득에 대한 제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득분배 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최저소득층에 교육기회 및 공정한 경쟁기회를 많이 제공해 이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다.
- ▶ **쉬창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국유기업 독점 등 불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했지만 소득분배 개혁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

□ **소득세 개혁을 통한 고소득층 징수확대 및 업종별 소득격차 완화 필요**

- ▶ **펑페이:** 중국 소득분배개혁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 개인 소득을 높이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민영기업의 임금협상제 도입, 노동자 권익 강화가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 개혁이다. 중국에서 소득세 문제는 세제 자체도 문제지만, 징수해야 하는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특히 고소득층의 소득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해 제대로 징수를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현재 세수정책에서도 제대로 징수하기만 하면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업종별 소득차이를 완화하는 것이다. 중국 내 현재 업종별 소득차이가 심하다. 금융, 석유, 천연가스, 전력, 통신 등 국유기업 독점분야는 일반 업종 대비 소득이 매우 높다. 증세가 아니더라도 독점업종 국유기업 임원층의 소득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고소득층의 세금을 높일지 여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

Q 3월에 소득분배개혁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 ▶ **펑페이:** 3월 양회 이후 발표되겠지만 완성도를 봐야 한다. 원칙적인 내용만 담아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실행이 어렵고 국민들도 실망이 클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에는 상황이 많이 복잡하다. 정책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유효한 수단으로 소득을 높이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이 아니다.

Q 2013년 중국 경제의 불안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쉬창원:** 국내보다는 글로벌 경제가 중국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과 유럽경제 회복여부가 중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 세계경기침체로인한 통화팽창은 상품가격보다는 자본유입을 통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왕이밍: 통화팽창이다. 미국, 유럽이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이 대외의존도가 높아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통화팽창은 보통 상품가격 상승을 통해 영향을 주지만, 세계 경제가 좋지 않아 상품가격 상승보다는 자본유입을 통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주목하는 요인이지만 아직까지는 불안요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 전통산업(철강, 시멘트, 가전 등)과 신흥산업(태양광, 풍력 발전설비)의 생산과잉 심화로 제품의 효율 및 가격 하락

▶ 펑페이: 중장기적으로 경제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가 가장 우려스럽다. 여전히 투자 성장이 너무 빨라서 통화 팽창이 심해지고, 생산과잉 문제가 나타나는 등 양적인 성장만을 지속하는 양상이 계속될 수 있다.

중국의 생산과잉 문제는 심각하다. 전통산업 뿐 아니라 신흥산업에도 생산과잉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전통산업에서는 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평판유리, 가전이 생산과잉이 심각한 분야다. 신흥산업에서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 생산이 과잉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태양광 산업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생산과잉으로 제품효율이 하락하고 제품가격 또한 하락해 전체 업계가 손실을 보는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

□ 경제구조조정을 통한 신성장동력·비교우위 발굴로 중진국함정 우려 해소 필요

올해 중국은 안정적 성장, 경제구조조정, 물가 억제가 3대 경제정책 과제인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구조조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존재하는 위협요소들이 점차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논의되는 문제는 고속성장 시대에서 중속성장시대로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중국 정부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처럼 갑자기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런 상황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지만 새로운 성장동력과 비교우위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Q 작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어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는데, 올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면?

□ 부동산정책, 미세조정은 있으나 ‘구매제한·대출제한·보유주택 수 제한’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는 변화 없을 것

▶ **왕이밍**: 지난 4분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기 시작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를 계속 기다리던 실수요자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주택을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본다. 중국 정부의 ‘구매제한, 대출제한, 보유주택 수 제한’이라는 부동산 정책 기본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점차 거래세, 부동산세 추진 등 경제 수단을 통한 부동산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행정력을 이용한 정책을 줄이는 방향으로 미세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 향후 도시화 추진 향방이 부동산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쉬창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는 의견에는 반대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도시는 대부분 대도시이며, 중소도시는 가격이 정체이거나 하락한 곳도 있다. 부동산 시장은 향후 도시화가 어떻게 추진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 중국정부의 미공개 부동산정책 다수 보유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통제 하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됨

▶ **펑페이**: 최근 일부 지역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에 대한 실수요가 아직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발상이 투자를 줄임으로서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르는 측면도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정부 예상 범위 내에 있으며 향후 1~2년 내 가격이 예전처럼 급상승하는 추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동산 정책들이 다수 준비되어 있다.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 문제가 된다면 준비된 정책들이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통제를 잃는 국면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Q 작년부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대규모 투자승인이 많이 났고, 지방정부도 대규모 투자계획을 다수 발표하고 있다. 이 경우 지방정부 부채가 악화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지방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 기업투자로 부채악화 가능성 완화 가능

▶ **왕이밍:** 투자승인이 났다고 해서 바로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용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지방의 용자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에서도 위험성 때문에 대출을 쉽게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지방정부 채무 문제는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되면 지방정부 채무는 높아지지 않는다. 물론 지방정부 채무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매우 주목하고 있는 이슈이지만 미국, 일본, 유럽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본다.

Q 은행 대출 이외의 비은행 부문 대출을 뜻하는 그림자 금융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민간자본의 은행 유입을 통한 그림자 금융 문제 해결 필요

▶ **왕이밍:** 그림자 금융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이 큰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다. 반면 시장주체가 불투명하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하겠다. 그림자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민간 자본이 은행으로 유입될 필요가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된 개혁을 추진 중이다.

□ 그림자 금융 합법화와 금융안정망 발전 동시 추구 필요

▶ **펑페이:** 중국은 은행시스템이 건전하지 않다. 리스크 회피를 위해 국유기업, 큰 기업에만 대출을 해준다. 따라서 작은 기업이 대출받으려면 받기가 어렵고 이자도 높다. 이러한 은행시스템 때문에 지하금융이 출현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금융

중에서 규모가 크고 비교적 건전한 기업을 찾아 합법화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효과적인 금융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에 소액대출회사가 있는데 이들 회사는 대출은 가능하나 저축을 받지 못해 대출 능력에 제한이 많다. 이러한 소액대출회사들은 저축을 받을 수 있는 은행으로 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현재 중국의 저축보험제도가 완벽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림자 금융의 합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축보험제도 등을 포함한 금융안전망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

Q 글로벌 양적완화 때문에 투기자금이 중국으로 몰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에의 영향은 어떤가?

□ 위안화의 양방향 움직임, 글로벌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하락 가능성 시사

▶ **평페이**: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많이 증가했는데, 유동성 증가 뿐 아니라 위안화 강세가 겹쳐져 글로벌 자금이 중국으로 몰릴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와 관련 기관은 핫머니 유입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위안화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잉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위안화 환율이 상승할 뿐 아니라 하락할 수도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본다.

Q 일본과 다오위다오 문제가 가열되고 있어서 경제분야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

□ 중일 영토문제 양국경제 모두에 상당한 영향, 중국의 작년 對일본 수입 8.6% 감소

▶ **평페이**: 분명히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중국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였는데 이 경우 일본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 부품, 장비들은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칩, 디스플레이, 변압기 부속품 등 중국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부품들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이런 영토분쟁이 양국간 경제관계 뿐 아니라 회복하는 글로벌 경제에 찬물을 끼얹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오위다오는 영토주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부와 국민이 모두 영토 안정을 우선시할 것이다.

- ▶ **쉬창원:** 다오위다오 문제는 양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년에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8.6% 감소했다. 일본은 과거 중국의 3대 무역파트너였지만 5대 파트너로 내려앉았다.

Q 한중 FTA를 비롯해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한다면?

□ 농산물 문제, 민간품목으로 분류하는 등의 방안 마련 필요

- ▶ **왕이밍:** 현재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마찰을 벌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한중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에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 한중 FTA 추진 과정에서 농산물 문제의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하다. 민감품목으로 분류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양국의 전반적 이익을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 한중 상호간 산업보완성 매우 높은 편, 향후 가치사슬 내 보완성도 주목해야 함

- ▶ **평페이:** 한중 양국은 상호간 산업보완성이 매우 강하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볼 때 일본과 중국이 산업보완성이 가장 강하고 한국과 중국도 보완성이 높은 편이다. 양국이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협력할 때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에는 산업간 뿐 아니라 산업 내 가치사슬에서의 보완성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의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 중국에서 조립해 중국시장에 공급하는 것, 한국의 디스플레이를 중국에 들여와 중국에서 조립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안이 예가 될 수 있다. 한국의 핵심 부품과 브랜드를 중국의 조립기술과 결합해 경쟁우위를 높일 수 있다.

□ 한중 FTA -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순으로 협상 진행 필요

▶ 쉬창원: 한국의 신임 대통령은 특사를 중국에 파견하는 등 한중 무역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은 한중 무역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한중 FTA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한중 FTA 추진시에는 쉬운 문제부터 풀고 어려운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순으로 협상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중 FTA 추진은 동아시아 통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끝/

2013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3-001	오바마 재선에 따른 경제, 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2013.1
13-002	2013년 1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3.1
13-00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공작기계 (머시닝센터) -	2013.1
13-004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골프용품 -	2013.1
13-005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안경테 -	2013.1
13-006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폴리에스터 단섬유 -	2013.1
13-007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폴리프로필렌 테이프 -	2013.1
13-008	선진국의 미래산업 육성정책	2013.2
13-009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광케이블 -	2013.2
13-010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전동공구 -	2013.2
13-01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컴퓨터주변기기 -	2013.2
13-012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펌프 -	2013.2
13-013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및 시사점	2013.2

□ KOTRA 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3-001	해외 주요국 투자인센티브 현황 및 사례조사	2013.1

□ 설명회 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3-001	2013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3.1
13-002	2013 중국 3대 유망시장 설명회	2013.1
13-003	2013년 전략시장 협력 파트너십 포럼	2013.1

- [중국 석학에게 듣는다] 2013 중국 경제 전망 -
- KOCHI자료 13-002 -

발행인 : 오 영 호
발행처 : KOTRA
편집인 : 배 창 현
발행일 : 2013년 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2013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중국 석학에게 듣는다] 2013 중국 경제 전망

K O T R A - C h i n a I n s t i t u t e

